



# 광남일보



**7** **진중공, 광주TP와 '광주드림패스' 협력**  
 RISE 참여대학 맞춤형 프로그램 등 지원

**8** **윤병태 나주시장, 주민과 대화로 신뢰 다져**  
 미래 비전 제시...344건 건의·애로사항 확인

**10** **혁신·변화로 '영암 대도약의 해' 달성**  
 농정대전환·통합돌봄 등 박차

**11** **"풍부한 감성 투영해 작성...시대를 기록"**  
 비상계엄일부 터헐시엔 정리 박종화 작가

조간 제7795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고문의 062-370-7070 **GwangNam.co.kr** 2025년 3월 5일 수요일 (음력2월6일)



## '대중음악 뿌리' 목포, 5월 K-POP으로 물든다

23~25일 '뮤직플레이' 개최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 총출동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모

'대중음악의 보고장'이라 불리는 목포시가 오는 5월 K-POP과 아이돌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물든다. ▶관련기사 16면  
 4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5월 23~25일 목포

종합경기장 일원에서 '목포뮤직플레이'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목포, 음악이 되다'란 슬로건으로 목포에서 시작된 K-POP의 역사와 다채로운 공연을 만끽할 수 있다.

목포는 '목포의 눈물' 이만영과 김해송, 이봉룡, 김시스터즈, 남진, 오정해, 박애리, 김경호 등 다수의 걸출한 음악가를 배출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산실이다.

뮤직플레이는 목포의 영어 명칭 'Mok-Po'의

앞글자 'M'과 'P'를 따와 만들어졌다. 'M'은 음악(Music), 'P'는 놀다(Play)를 뜻하며, '음악으로 놀다'라는 의미가 부여됐다.

올해 뮤직플레이에서는 이러한 의미를 살려 대중음악과 K-POP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된다.

대표적으로 국내 최정상급 K-POP 아티스트를 비롯해 힙합과 락 등 젊은층을 겨냥한 풍성한 무대가 관객들을 맞는다.

또 '목포'를 표현한 창작곡 경연대회도 마련되며, 데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지역 예술인의 프린지 공연, 목포만이 가진 분위기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제품과 체험을 만날 수 있는 팝업스토어 등도 준비된

다. 특히 목포시는 뮤직플레이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등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행사 당시 직접 경제효과 73억원을 거둔 것으로 추계, 올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관광은 물론 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뮤직플레이는 목포가 지닌 음악 자원의 차별성을 재조명하고, 명실상부한 음악 도시로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며 "목포음악의 근현대사를 담아 대중음악의 본거지이자 세계로 뻗어 나가는 K-POP의 출발지란 위상을 재정립해 관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서울예술단' 광주 문화전당 이전 초읽기

국립예술단체 첫 지방에 등지...정부, 내일 발표 예정  
 지역 미술계 숙원 '국립현대미술관' 유치도 가시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예술단체인 '서울예술단'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으로 이전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예술단체가 지방으로 완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예술격차 해소 및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광주시와 정처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향후 10년 간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문화비전 2035'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정책안에는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주단체 이전'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문화비전' 발표를 통해 현재 서울 예술의전당에 자리잡고 있는 서울예술단을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상주 방식으로 완전 이전하고, 단체의 이름도 '국립아시아예술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산하 국립예술단체 중 독립 제단법인인 서울예술단을 비롯해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국립정동극장,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등 8곳으로, 모두 서울에 근거지를 두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예술단은 남북 문화예술 교류를 위해 지난 1986년 출범했으며, 광주 이전이 현실화되면 국립예술단체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첫 사례가 된다.

지역에서는 국립예술단체들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방과의 문화 격차가 심화되고,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욕구가 높은 청년층의 지방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서울 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9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예술단이 95.6%, 국립극단 93.4%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립예술단의 광주 이전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는 물론 지역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중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이전하면 수도권과 지역간 국립예술단체 활동의 불균형이 해소돼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서울예술단 내부 구성원들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광주 이전에 필요한 관련 예산 및 근거 법률 마련

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립현대미술관의 광주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박물관·미술관진흥법'에는 '지방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균형있게 권역별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호남권에 단 한 곳 없는 국립현대미술관의 광주 유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동안 광주시는 지역 미술계 숙원사업인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를 위해 미술계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왔다.

지난 2023년 민·관·청 협의체를 구성해 미술관 건립부지 확보 등의 준비를 시작했고, 지난해 3월 미술계, 학계 등 전문가 위킹그룹은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건립의 필요성과 방향 등이 담긴 기본구상을 수립했다. 이어 8월에는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립현대미술관 유치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30년 전통의 광주비엔날레 개최도시이자 미디어아트 유네스코 창의도시인 광주시는 지역특화형 미술관 건립 등을 통해 지역에서도 고품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호남권 최대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나홀로 입학식'** 4일 오전 광주 광주중앙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올해 유일한 1학년 신입생 심의준 군(7)이 입학식을 마친 뒤 선생님과 함께 교실로 걸어가고 있다. 광주중앙초는 한 때 전교생이 4000명대에 육박했지만 저출산 여파로 전교생이 23명으로 급감했다. ▶관련기사 6면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오늘 광주·전남 38개 투표소  
 오전 7시~오후 5시까지 진행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5일 광주·전남 38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국 동시 직접 선거로 광주와 전남에서는 무투표 당선을 포함해 총 85명의 금고 이사장이 선출된다.

4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상 첫 실시되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투표가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는 광주 12곳, 전남 26곳에 마련됐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광주 35곳, 전남 50곳 등 85곳(무투표 포함)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직·간선제로 선출된다.

앞서 후보등록 결과 광주는 48명, 전남은 66명이 지원해 각각 1.4대 1과 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인 수는 광주가 5만6103명, 전남이 3만9454명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각 지역 금고의 최고경영책임자로서 금고 운영과 조합원 관리 등 주요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2면에 계속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본사 인사

△김상훈 命 命 命 命 命

〈2025년 3월 5일자〉

**전라남도 JeollaNamdo**  
**남도의 맛깔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남도 음식 거리**  
 맛있는 만남이 있는 행복한 남도음식거리에서 남도의 맛과 멋을 즐겨보세요.